2022 열린 인생 12.
약해진 자들을 공격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라(합심 기도의 위력)

[출애굽기 17:14-15]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 아말렉의 정체

[신명기 25:17-18] 17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여정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 목적지가 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악한 적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적이 '아말렉'이다. 특별히 아말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왜 아말렉과의 싸움이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가?

(1) 영적 싸움

성경은 성도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한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성도의 '영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영이 약해지면 '혼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 영적 사고가 멈춘다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영이 약해진다는 것은 내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다. 보여지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만들어진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영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다.** 그 예는 선악과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한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다. 결국, '의심'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다.

(2) 연약해진 성도를 향한 아말렉의 공격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아말렉이 나타나 피곤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새번역을 보니 더 명확하다.

[신명기 25:18, 새번역]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죽였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악한 족속이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다.

[신명기 25:19, 새번역]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지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3)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아말렉의 두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말렉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정확히 보여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셨다.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용서를 받고 치유 받고 회복을 얻었다. 그러나 아말렉의 통치 철학은 철저히 강자 편에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무엘상 30장에 소개된다.

[사무엘상 30:11-13, 새번역]

11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12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한 개와 건포도 뭉치 두 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13 다윗이 그에게 물어 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 모두를 잡아간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부하들이 평정심을 잃고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상황).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낸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 아말렉을 치러 간다. 그 여정 가운데 애굽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의 노예였다. 애굽 사람은 굶주림에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다윗에게 시간은 금과 같다. **이런 급한 시간 안에서도 다윗은 연약한 자를 돌본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아말렉은 애굽 사람이 병들고 연약해지자 버렸다.** 지치고 연약한 애굽 사람에 대한 다윗과 아말렉의 태도는 정반대다. 아말렉의 뿌리는 하나님 없는 강한 세상을 바벨탑으로 만들고자 했던 니므롯의 세계관과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다.

(4) 아말렉의 영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이후에 지쳐 있다. 생각과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탄은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아말렉처럼 움직인다.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

2. 합심 기도 -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

[출애굽기 17:8-16]

8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 영적 원리 - 카운터 스피릿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연합'이다. 아말렉의 목표는 진리와 하나된 성도들의 마음을 뜯어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지쳐 있고 연약한 때를 노린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하여 돌봄의 사각지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 반대의 개념을 일으키는 것이다(카운터 스피릿). 모든 일에는 반대의 개념이 있다. 어두움과 빛, 거짓과 진리, 분리와 연합, 미움과 사랑, 슬픔과 기쁨 등 반대의 개념이 있다. 가장 강력한 싸움은 사탄과 반대의 개념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그림을 말씀을 통해 보여 주신다. '기도와 예배'가 답이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되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하늘이 땅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 준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일은 이 땅에 실제적인 일로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연약해 지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분리와 갈등을 일으키려 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2) 합심 기도의 위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합심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모세에게 주신다. 그 전략은 연합이다. 아비 세대인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해 기도했다. 그리고 자녀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가 실제적인 전쟁을 담당했다. 승리의 비결은 '연합'이다.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것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연합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 싸움에서 지치고 연약할 때, 도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지칠 때(12절-모세의 팔이 피곤하매~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아말렉은 절대 혼자 이길 수 없다.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

[마태복음 18:19~20]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위력에 대해 말씀하신다. 19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직 한 갈망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이었다. **마지막 때는 어려움으로 지치고 연약해져 힘든 사람이 증가한다. 이때 그들을 공격하는 아말렉과 같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는 것**이다.

'연합의 유익' 연합의 원리가 있다. 연합은 내 능력 이상의 권위가 부어진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엔진은 작은 단위의 기도에 있다. '교회, 가정, 스몰 등'에서 연합해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3. 우리가 해야 할 일

(1) 두세 사람의 기도가 회복되는 일 - 스몰 모임, 가족 모임, 공동체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하신다.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되어야 한다.

(2) 모세의 기도(부모 세대의 기도)가 회복되는 일 -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인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리 비결이 모세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 세대의 기도를 회복하라. 다음 세대가 아말렉에 공격을 당하는 이유의 책임이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세처럼 고지에서 밀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합심해 연합해서 기도해야 한다.

(3) 여호와 닛시의 제단 - 잃었던 것 다 찾아오자.

[출애굽기 17:15-16]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불과 유업을 다음 세대인 엘리사, 여호수아 세대에게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제단 위의 예배를 '여호와 닛시'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여호와 닛시의 제단을 함께 수축해 찾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찾아오자. 할렐루야! 아멘!